내년 7월 광주서 '유네스코 동아시아 어린이 공연예술제' 개최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7개국 10개팀이 참여하는 '유네스코 동아시아 어린이 공연예술제'가 내년 7월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올 8월 중국 심양에서 열린 행사 모습.

아시아 꿈나무 평화와 미래를 노래한다

북한·일본·중국 등 10개팀 참여…학교서 현장 공연·가정 방문

세계 문화 유산 관람…"문화 수도 광주 유네스코와 협력 강화"

아시아 각국의 어린이들이 광주에서 축제를 벌인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삼열)와 광주시가 주최하는 2008년 '유네스코 동아시아 어린이 공연예술제'(이하 어린이 예술제)가 내년 7월23일부터 28일까지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어린이 예술제는 2000년 마쓰우라 고이치로 유네스코 본부 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각국 전통문화의 이해와 교류를 촉진하고 평화의 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 지난 2001년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일본 후쿠오카, 경기도 수원시, 중국마카오, 몽골 울란바트로, 중국 심양에서 개최된 바 있다.

'우리의 미래와 지구촌 세계 시민'을 주제로 열리는 2008년 어린이 예술제에는 한국(4개팀)을 비롯, 북한, 필리핀, 몽골, 일본, 중국, 홍콩, 마카오 등 7개국 10개팀이 참여한다. 행사 예산은 모두 6억 5천만원(국비 3억원, 시비 2억원, 유네스코지원금 1억5천만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북한 어린이들의 참여. 광주 행사에는 만경대 예술단과 소년학생궁전 예술단 가운데 한 팀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한국 대표로는 선화예고, 예원중학교, 난파합창단 등이 참여했으며 내년 행사는 광주에서 열리는 만큼 광주·전남 지역의 예술 꿈나무들이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참가팀들은 7월 25일과 26일 두차례의 대형 공연을 펼치게 되며 화순·고창의 고인돌 등 세계문화유산을 둘러보는 시간도 갖는다.

특히 각 나라 대표팀은 문예회관에서 공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급 학교를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공연을 하고 광주의 어린이들과 직접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각 가정을 방문, 한국의 문화도 접하게 된다.

그밖에 행사 기간 중에는 9차 유네스코 동북아 국가위원회 사무총장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마쓰우라 고이치로 유네스코 본부 사무총장도 방한한다.

이번 행사가 갖는 의미 중 하나는 광주시가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와 정식 교류의 물꼬를 텄다는 점이다. 어린이예술제를 개최했던 중국의 북경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연구센터를 유치하는 등 세계 각국이 예술제를 계기로 유네스코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광주시 역시 이번 행사를 출발점으로 삼아 유네스코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설명회를 위해 광주를 방문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이삼열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예술제를 개최했던 도시들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유네스코와 인연을 맺어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왔다며"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 역시 유네스코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613-34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화접도, 사호 송수면의 회화세계

국립광주박물관 11일부터 특별전…묵란도·화조잡화권 등 20여점 전시

사호(沙湖) 송수면(宋修勉·1847~1916)은 허백련 선생을 이어 호남 화단의 명맥을 이어온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문인화가다.

화순 출신인 그는 신필에 가까운 화접도(花蝶圖·꽃과 나비를 그린 그림) 때문에 '송나비'라는 애칭으로 불렸을 정도로 이름이 높았다.

당대에 높은 평가를 받았던 그의 묵죽도나 화접도가 단편적으로 소개되기는 했으나 호남 문인화를 풍부하게 살찌운 그의 예술이 총체적으로 조명된 사례는 없었던 게 사실.

국립광주박물관과 부국문화재단이 11일~ 내년 2월10일까지 공동개최하는 '사호 송수면의 회화세계' 특별전은 송수면 선생의 생애와 작품을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송 선생이 남긴 산수화와 화조, 동물화 등 미공개 작품들이 다수 출품된다.

특히 화조잡화권(花鳥雜畵卷)과 송학도(松鶴圖) 등 꽃과 새, 나무 등을 그린 작품 20여점은 송 선생의 후손들이 특별전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한 작품들. 이밖에 그림 교과서 격인 고씨화보(顧氏畵譜)와 십죽재서화보(十竹齋書畵譜) 등을 모방한 습작들은 자기만의 새로운 화법을 추구했던 송수면 선생의 작가정신을 보여준다.

전시에는 송수면 선생의 화업을 계승한 조카 송태회(宋泰會)와 그의 아들 대회(大會)의 작품도 함께 출품돼 가계로 이어져온 남도 문인화의 예맥을 살펴볼 수 있다.

'묵란도'

오는 20일 오후 2시에는 이태호 명지대 교수와 이선옥 전남대 강사가 강사로 나서 '호남의 전통회화'와 '사호 송수면의 회화세계'를 주제로 특강한다. 문의 062-570-7000.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社告

광주일보 신춘문예 15일 마감

2008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의 마감(15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감일이 가까워지면서 하루 평균 수십 편의 응모작이 접수되는 등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대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부터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되어왔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문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수성과 치열한 문학정신으로 한국문학에 새 지평을 열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단편소설·시·동화…한국문학에 새 지평

▲부문 및 상금
-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300만원)
- 시 : 3~5편 (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접수마감 : 2007년 12월 15일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501-711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편집국 문화생활부(전화 : 062-2200-635)
■ 기타
- 팩스나 이메일 원고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주소·이메일 주소·인물사진을 함께 보내주십시오.

光州日報社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족' 빼고 새 출발

국내를 대표하는 진보적 문인단체인 민족문학작가회의가 출범 20년 만에 '민족'이라는 수식어를 떼고 '한국작가회의'로 새롭게 출발한다.

민족문학작가회의(이사장 정희성)는 8일 오후 사간동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단체 명칭을 '한국작가회의'로 바꾸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자유실천문인협의회를 모태로 1987년 탄생한 민족문학작가회의는 20년 만에 시대에 맞는 새 이름을 갖게됐다. 이번 명칭 변경은 '민족(national)'이라는 용어로 인해 해외에서 과격한 우파 단체로 오해를 산다는 지적이 회원들 사이에서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작가회의는 정관 개정안 통과 직후 '한국작가회의 출범 선언문'을 채택해 명칭 변경의 당위성과 향후 지향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신임 사무총장으로 도종환 시인이 뽑혀 앞으로 2년간 작가회의를 실질적으로 이끌게 됐다. 신임 이사장직은 내정됐던 김지하 시인이 신병을 이유로 고사해 내년 3월 다시 결정된다. /연합뉴스

올해도 문학작품 많이 안읽었다

인터넷서점 예스24 설문조사

2007년에는 중견 한국 작가들의 소설들이 잘 팔리긴 했지만 전체 출판시장에서 보면 문학 책을 선택한 독자의 비율은 하락세를 면치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인터넷서점 예스24가 9일 내놓은 '2007년 출판 이슈'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판매된 문학작품은 한국문학이 81만부, 해외문학이 110만부 등 총 191만부로 지난해의 225만부보다 15.1% 줄었다. 이는 2005년의 196만부 수준보다도 적은 수치다.

특히 이 서점에서 판매되는 전체 책 판매부수 대비 문학책 판매부수의 비율은 2005년 15.3%(한국문학 6.1%, 해외문학 9.2%), 2006년 14.3% (한국문학 5.8%, 해외문학 8.5%), 2007년 12.6%(한국문학 5.3%, 해외문학 7.3%) 등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연합뉴스